

자녀의 성적이 어머니와 자녀의 교환관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현주* · 이선이** · 이여봉***

초 록

자녀의 성적이 어머니와 자녀간 교환관계와 만족도에 어떤 인과적 관계를 형성하는지 검증하였다. 교환이론과 자원이론에 근거하여 부모자녀간 교환되는 6개 영역의 자원교환의 실태가 어머니와 자녀의 형평성인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갈등수준과 만족도 수준에 각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본연구모형의 검증과 함께 성적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5대 광역시를 표본으로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 450명과, 청소년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다. 수집된 자료는 EQS에 의해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교환이론의 이론적 모형은 어머니보다는 자녀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였다. 성적 또한 자녀집단에서만 교환관계와 인과관계가 형성되고, 갈등수준과 만족도에도 자녀집단에서만 영향을 미쳤다. 자녀들은 자신의 성적이 나쁘면 어머니로부터 자원을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자녀의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아들의 성적은 영향이 없지만 딸의 성적은 어머니의 교환관계와 관련이 있었다.

주제어 : 자원교환, 형평성, 성적, 모자녀관계 만족도

*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kimhj@cau.ac.kr

**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sunilee@ajou.ac.kr

*** 강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yblee@kangnam.ac.kr

I. 서 론

한국 사회의 부모자녀관계에서 학업성취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부모들은 성공적인 가정생활의 의미를 자녀교육과 발전에 두고(박영신·김의철·탁수연, 2002) 있는 반면 청소년 자녀들의 입장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또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라는 연구결과들도 있다(김성숙, 2000; 박영신·김의철, 2004; 김현주·이길자, 2009). 청소년 자녀의 대부분이 학생이라는 점과 한국부모들의 높은 교육열¹⁾은 학업성취가 부모자녀관계에서 긴장과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적에 대한 부담은 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부모들이 자녀에게 모든 자원을 지원하고, 자녀들은 가족 내 책임을 면제받고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청소년들은 OECD 7개국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학습에 사용하고 있기(김기현·장근영, 2009) 때문에 부모와의 실제적인 상호작용이 교환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의 청소년 자녀들에게 학업성취는 부모자녀간 직접적인 교환자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관점이다. 즉 청소년의 학업성취수준은 부모자녀 교환관계 밖에 존재하는 외부변수로서 부모자녀의 교환관계에 영향을 미쳐 직접적인 교환관계에서 도달하기 어려운 형평성과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학업성취도가 부모자녀관계에서 교환되는 하나의 자원으로 모형에 포함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학업성취도가 다른 교환자원과 달리 개인의 의도나 태도에 의해 결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자녀간 만족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이론적인 기본 모형에 더하여 자녀의 학업성취라는 변수를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기본 연구모형은 자원이론, 교환이론과 형평성이론에 근거하여 6개 자원 영역에서 교환되는 부모자녀간 교환관계의 양상이 부모자녀간 형평성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교환관계에 대한 갈등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정한다. 교환관계에서 불

1)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고교졸업자의 80%가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진학률이 1위에 달하고, 미국 내 유학생 수도 1위에 해당함을 통해 알 수 있다.
(http://galaxy.yonsei.ac.kr/bbs/view.php?id=galaxy_freeboard&page=7&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79)

공평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므로(Adams, 1965; Walsler, Berscheid, & Walster, 1973) 형평성 인지수준은 갈등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 나아가 갈등수준은 부모자녀관계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구조를 지닌다고 본다. 이러한 순차적 인과관계에 더해 형평성에 대한 인지수준은 관계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Hatfield, Traupmann, Sprecher, Utne, & Hay, 1985) 인과관계도 설정한다.

기존의 학업성취 관련 연구(김경식·안우환, 2003; 김현주, 2007; 김현주·이병훈, 2007, 2006; 추상엽·임성문, 2007a; 추상엽·임성문, 2007b; Bean, Barber, & Crane, 2006; Chen, 2005; Wong, Wiest & Cusick, 2002)들은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원 및 학습지원 등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 반대의 인과관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즉 자녀의 성적에 따라 부모로부터, 또는 자녀로부터 교환되는 자원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하는 모형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자녀의 성적과 부모자녀간 자원교환 사이의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밝히고 세대와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모형이 필요한지 밝히고자 한다.

II. 기존연구의 고찰

1.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교환이론적 관점

교환이론은 모든 인간관계를 자원의 교환관계로 파악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에게 지불하는 비용보다 상대로부터 받는 보상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보상이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반면 상대에게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크고 상대로부터 받는 보상이 적을 경우에는 그 관계를 떠나려는 경향을 보인다(Homans, 1974; Huesmann & Levinger, 1976; Huston & Cate, 1979; Sprecher & Schwartz 1994). 더 나아가 양자가 관계에서 얻는 것이 지불하는 비용에 비례하여 비슷해야, 즉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만족스러운 관계가 유지된다. 엄격한 의미의 형평성 이론에서는 많은 보상을 얻는 쪽이나 많은 비용을 치르는 쪽, 모두 긴장을 느낀다고 한다. 그러나 경험적으로는 많은 보상을 얻는 쪽보다는 많은 비용을 치르는 쪽이 더 긴장을 느낀다(Walster, Walster &

Berscheid, 1978). 실제로 한국의 부부관계에서 적게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형평하다고 느끼는 사람보다 결혼만족도가 낮고, 형평하다고 느끼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선형적 관계가 형성됨을 발견하였다(Kwon, 1992).

Foa와 Foa 등(Foa & Foa, 1975; Foa, Converse, Törnblom, and Foa, 1993)에 의해 제시된 자원이론(resource theory)은 대인관계에서 교환되는 자원을 6개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6개 영역은 애정(love), 지위(status), 정보(information), 금전(money), 물품(goods)과 서비스(service)라고 정리하였다. 일회적이거나 부정기적 관계에서는 교환이 6개 영역 중 동일한 영역내의 교환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형평성의 차원이 다양하며, 형평성에 도달하는 방법이 매우 주관적이고 심리적일 수 있기 때문에 (Messick & Sentis, 1983, 68-69), 친밀한 관계에서는 자신이 상대에게 제공한 것과 동일한 자원이 상대로부터 되돌아 올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전혀 다른 영역간의 교환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형평성이 달성될 수 있다(Klein and White, 1996; Roloff, 1987; Walster et al., 1978; 김현주, 2005).

교환관계에 대한 만족은 이자간의 관계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결과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Austin, McGinn, & Susmilch, 1980). 이는 Thompson (1991)의 “준거적 형평성” 개념과 유사하다. Thompson의 준거적 형평성은 사회적 준거를 기반으로 자신의 관계를 비교하는 것이다. 때로는 이전 세대에서의 부모자녀관계나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부모자녀관계를 준거로 현재의 나의 부모자녀관계를 비교하여 형평성을 인지하기도 한다. 즉 만족도는 직접적인 교환관계에 있는 상대와의 교환결과에서 발생하는 형평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준거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상적 교환결과와 형평성과 나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얻는 교환결과와 형평성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현재의 교환관계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현재의 교환관계에 만족한다. 따라서 교환관계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환관계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다른 준거적 관계와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한 형평성 평가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부모자녀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을 교환관계적 시각에서는 형평성의 부재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긴장을 유발한다고 본다(Walster et al., 1978).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교환관계²⁾는 소유한 자원의 차이와 관계에 요구되

2) 부모자녀관계를 교환이론적 관점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상당수 진행되어 있고,

는 사회적 기대와 압력의 차이로 인해 여러 면에서 평등³⁾한 관계일 수는 없다. 부모 자녀관계에서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모들은 실제적인 혜택을 요구하기도 하고, 존경할 것을 요구하고, 때로는 보복을 하기도 한다(Walster et al., 1978). 교환관계에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관계의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갈등수준은 두 사람의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자녀 교환관계 자체에서도 세대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 부모와 자녀에게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교환에 대한 규범이 다를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교환가능한 자원은 세대별로 차이가 난다. 부모는 자녀에게 신체적, 물리적, 정서적 안전감을 제공해야 하는(Walster et al., 1978) 반면에 부모의 양육책임과 의무이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모에 대한 복종과 감사,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요구된다. 부모자녀관계, 특히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는 보다 수평적으로 변화되었다. 자녀에게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원을 제공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부터 받는 것을 기대하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자녀의 발달주기에 따라서도 교환관계에서 필요한 자원에 차이가 발생하지만(Teichman, Glaubman & Garner, 1993), 일반적으로는 교육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청소년 자녀들은 부모에게 정서적 자원을 제공할 것이 기대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물질적, 정서적 자원을 제공할 것이 기대된다.

세대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도 소유하고 있는 자원에 차이가 있으며, 관계형성에 차이가 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 정서적 자원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남성은 여성에 비해 물질적 자원을 더 많이 갖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사회화 과정의 결과(Parsons & Bales, 1954; Bott, 1957)이기도 하고, 사회구조에 의해 차별화된 경제적, 물질적 자원에의 접근가능성의 결과(Barreto, Ryan & Schmitt, 2009; 이주희 · 한영희 · 성현정 · 인정, 2007)이기도 하다. 성별에 따른 소유 자원의 차이뿐만 아니라 관계형성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다. 딸이 정서적으로 부모와 더 가깝고(Kaufman & Uhlenberg, 1998; Shehan & Dwyer, 1989), 여성이 친족과 가족간의 연계망 유지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Bott, 1957). 또한 모녀의 결

경험적으로 교환이론적 관점을 적용한 연구들도 많다. 이에 대한 논의와 참고문헌은 김현주 · 이선이 · 이여봉(2006), 이선이 · 김현주 · 이여봉(2006), 이여봉 · 이선이 · 김현주(2007), 신화용 · 조병은(2004)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3) 형평성(equity)이나 공평성(fairness)의 가장 핵심은 역시 평등성(equality)이라고 할 수 있다 (Messick & Sentis, 1983, p.68).

속력이 다른 가족관계보다 강하다(Rossi & Rossi, 1990).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더 지지적이며, 아들보다는 딸에게 더 지지적이라는 연구결과(이선이 · 이여봉 · 김현주, 2008)나, 어머니와의 애정표현이나 정보교환에 있어서 딸이 아들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이선이 · 김현주 · 이여봉, 2006). 반면 딸보다 아들이 어머니와 관계가 더 좋다는 주장(문수경, 2005)이 병존한다. Youniss와 Smollar (Youniss & Smollar, 1985)에 의하면, 권위적이고 비대칭적인 방식의 상호작용을 주로 하는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가정 내에서의 행동방식, 감정상태, 대인관계 등의 영역에 주로 관여하기 때문에 같이 외출하는 것을 좋아하고 개인적인 사정을 털어놓고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는 딸이 어머니와 대칭적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자녀의 학업성취와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

학업성취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어떤 요인에 의해 성적이 영향을 받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오성삼과 구병두(1999)는 587편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논문들을 메타분석하여 다섯 개의 변인군에 대한 효과크기를 추출하였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군은 교수 및 학습관련 변인으로 효과크기(e.s.) .69를 갖고, 그 중 가정변인군은 효과크기 .33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정변인들 중에서는 주로 부모의 지원(추상엽 · 임성문, 2007a, 2007b; 박영신 · 김의철, 2000; Anderson & Minke, 2007; Chen, 2005), 사회경제적 지위(안병철, 2007; 김현주 · 이병훈, 2007, 2006; Cheung & Andersen, 2003) 등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검증되어왔다.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부모의 지원과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와 긍정적 관계를 맺는다는 결과를 지지하지만 부모의 지원과 학업성취가 부정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고하는 결과도 있다(Singh, Bickley, Keith, Keith, Trivette & Anderson, 1995). 부정적 관계를 발견하거나 긍정적 관계라는 주장을 떠나, 학업성취와 부모의 자원이나 지원의 관계를 살피는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의 자원과 지원을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고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본 연구에서 보려는 바와 같이 자녀의 학업성적이 부모자녀간 교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자녀가 성취하는 학업성적이 부모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김의철 · 박영신, 2008). 부모들은

성공적인 가정생활의 의미를 자녀교육과 자녀발전으로 보는(박영신·김의철·탁수연, 2002) 경향이 있으므로 확대된 자기로서의 자녀가 교육적 성취를 이루는 것이(김의철·박영신, 2006a, 2006b) 가정의 성공이고, 부모의 자랑거리가 된다(김의철·박영신, 2008)고 보고 있다. 아울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것은 부모에게 보답하거나 효도의 의미라는 연구결과들도 있다(김성숙, 2000; 박영신·김의철, 2004; 박영신·김의철·한기혜, 2003; 김현주·이길자, 2009).

학업성적은 자녀가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만족도와는 관련이 많다(박영주·정혜경, 2002; 박영신·김의철, 2006, 1998).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많고, 생활만족도가 낮았다(박영신·김의철, 1998). 하지만 자녀의 학업으로 인해 부모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이동원, 1992)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적이 자녀와의 갈등 수준이나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박영신 등(박영신·김의철, 2000; 박영신·김의철·한기혜, 2003)에 의해 부모와의 갈등과 낮은 학업성취도의 관련성이 연구되었고, 김경신(1995)은 부모자녀간 갈등과 자녀의 수험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환관계의 형평성과 갈등, 만족도에 이르는 인과관계 이외에 자녀의 성과 세대를 외생변수로 모형에 투입해 통제하는 기본모형을 설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학업성취와 부모자녀간 교환관계간의 상호영향에 대해 분석할 뿐만 아니라 성적 자체가 부모자녀간 갈등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와 자료수집

본 연구의 표본은 전국을 모집단으로 하여 청소년 450명과 해당 연령의 자녀를 둔 어머니 집단⁴⁾ 450명으로 구성되었다. 아들이 459명, 딸이 441명이고, 중학생 330명,

4) 어머니와 자녀가 동일 가족 구성원은 아니다.

고등학생 292명, 대학생⁵⁾ 278명이다. 설문면접이 이루어진 지역은 서울과 5대 광역도시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이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전문조사기관에서 훈련된 면접원들에 의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05년 5월 27일부터 6월 27일까지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EQS version 6.1에 의해 분석되었다. 어머니집단과 자녀집단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특 성		자녀집단	어머니 집단	
자녀의 성별	아들	50%	52.0%	
	딸	50%	48.0%	
자녀의 교육	중학교	33.6%	39.8%	
	고등학교	34.0%	30.9%	
	대학교	32.4%	29.3%	
어머니의 취업	미취업	48.4%	38.0%	
	취업	41.4%	49.1%	
	기타	10.2%	12.9%	
어머니의 학력	중졸이하	10.0%	5.1%	
	고졸	68.7%	78.9%	
	대졸이상	21.3%	16.0%	
경제상태	매우가난	2.2%	200만원이하	12.2%
	가난한편	4.4%	200-300만원미만	33.8%
	그저그렇다	72.4%	300-400만원미만	39.3%
	부유한편	20.05	400-500만원미만	9.8%
	매우부유	0.95	500원이상	4.9%
합계	450명		450명	

5) 대학생은 부모와 동거하는 24세 미만의 청소년 연령으로 제한하였다. 학업성취도에 대한 관심이 대학진학과 관련되므로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집단에서 성적의 역할이 다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대학생집단과 중고등학생 집단을 구분하여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 간에 적합도지수의 차이가 없었다. 부모와 동거한다는 조건과, 대학생들의 성적도 부모들이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고 취업을 위해 대학생의 성적도 중요해짐으로 인해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변수의 측정과 구성

모형구성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자를 0으로 남자를 1로 처리하였으며, 세대변수는 자녀를 0으로 어머니세대를 1로 코딩하였다. 성적은 평균성적으로 측정하였으며 1은 90점 이상(A), 2는 80점에서 90점 사이(B), 3은 70점에서 80점 사이(C), 4는 60점에서 70점 사이(D), 5는 60점 이하(F)를 나타낸다.

교환관계는 6개 영역의 교환관계척도⁶⁾들로 구성하였다. 6개의 영역은 서비스, 물품, 돈, 정보, 지위, 애정영역이다. 서비스 영역은 가사를 돕거나, 깨워주고, 안마를 해 주는 것과 같은 항목들이다. 물품영역은 물건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공간사용과 같은 항목들로 측정하였다. 돈 영역은 용돈 사용과 돈 쓰는 방식, 저금 등으로 측정하였다. 정보영역은 이야기하기, 의견구하기, 정보전달 등과 같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지위영역은 자율인정, 비교하기, 잘못된 일이나 실수에 대한 반응 등으로 측정하였다. 애정영역은 말이나 신체접촉을 통한 친밀감의 표현, 또는 공격적 행동이나 회피하기와 같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각 영역의 문항들을 가법척도화하여 사용하였다.

형평성인지도는 두 개의 측정변수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부모자녀간 교환관계에 대한 형평성인지와 다른 집의 일반적인 부모자녀간 교환관계와 비교하여 평가한 준거적 형평성인지이다. 5점 척도로 구성된 6개 영역에 대한 교환형평성인지와 총체적인 교환형평성인지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준거적 형평성인지도 6개 영역에 대한 문항과 전반적인 준거적 형평성 수준에 대한 5점 척도 문항을 합한 값으로 측정되었다. 교환형평성과 준거형평성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나에게 유리한 정도⁷⁾를 나타낸다. 갈등수준은 6개의 영역에서 상대방과 싸우는 5단계의 빈도 수준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만족도는 2개의 측정변수로 구성되었다. 하나는 관계만족도이고 다른 하나는 교환만족도이다. 관계만족도는 8개의 5점 어의척도의 합산한 값으로 측정되었다. 사용된 문항들은 “만족, 좋다, 가깝다, 우호적, 안정적, 따뜻하다, 통한다, 자유롭다”이다. 교환만족도는 5점 척도인 6개의 영역과 하나의 전반적 만족도를 합산

6) 교환관계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의 개발과 신뢰도 및 타당화 과정은 김현주·이선이·이여봉(2006)의 연구를 참고, 각 영역별로 측정에 사용한 항목은 제 1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7) 형평성수준과 만족도간의 관계는 선형적 관계를 가정할 수 있다. 이전의 경험적 연구결과도 선형적인 관계를 지지하였으며(김현주, 2005; Kwon, 1992) 이번 자료의 곡선검증결과 역시 선형적 관계를 지지하였다.

한 척도로 측정되었다.

3. 모형구성

본 연구에서는 EQS 분석방법에 의해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모형을 구성하였다. 자원이론과 교환이론에 근거한 이론적 모형은 부모자녀간 교환관계와 이에 대한 형평성인지도, 그에 따른 갈등과 만족도에 이르기까지의 인과관계⁸⁾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사회에 매우 독특한 현상으로 자녀의 성적에 대한 관심과 열망⁹⁾에 주목하여 이 요인을 부모자녀간 교환관계와 영향을 주고받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교환관계와는 별개로 성적을 부모자녀간 갈등과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부모의 지원이 자녀의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인과관계 즉 부모자녀간 교환관계의 실패가 자녀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모형 A)인지 아니면 지금까지는 많은 연구가 없었지만 성적이 좋으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 해준다는 통상적 신념에 따른 인과관계, 즉 성적이 부모자녀간 교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모형 B)인지를 모형 적합도 검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는 다음과 같다(표 2). 학업성취수준에 대해서는 자녀보다는 어머니가 성취도가 낮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6개 교환영역의 척도평균으로 어머니와 자녀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서비스와 애정영역은 자녀가 더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어머니는 물품, 돈, 정보와 지위영역에서 더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였

8) 회귀(recursive)모형을 설정하였다. 비회귀모형은 모델 인정(identification)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t-rule 검증을 거친 두 개의 회귀적 인과모형을 설정하였다.

9)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학업성취와 학업열망 등의 평가에서는 OECD국가 중 2위에 해당하지만 행복감(55.4%)은 OECD 20개국의 평균(84.8%)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news.msn.co.kr/gate/article/print.html?id=20090508056461004>).

다. 다른 자녀나 다른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준거적 형평성인지는 자녀와 어머니의 수준이 비슷하지만 교환적 형평성인지에서는 자녀는 자신들이 많이 받는다고 인지하는 반면 어머니는 적게 받는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 갈등수준은 자녀가 어머니보다는 조금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환만족도도 자녀가 어머니보다는 높다. 그러나 관계만족도는 자녀와 어머니의 수준이 유사하였다.

<표 2> 변수들의 기초통계

변수	자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α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α
성별(남자=1/여자=0)	.50	.5000		.52	.500	
학업성취#	2.22	1.002		2.41	.765	
서비스	3.18	.481	.601	2.67	.619	.744
물품	3.18	.585	.744	3.23	.472	.733
돈	2.82	.558	.524	2.92	.559	.716
정보	2.87	.526	.752	3.03	.431	.668
지위	2.97	.564	.666	3.19	.447	.674
애정	3.38	.606	.766	3.13	.456	.720
교환형평성	26.55	4.366	.823	15.14	4.923	.854
준거형평성	24.54	6.203	.929	24.66	4.989	.902
갈등수준	12.93	4.266	.778	11.21	3.875	.829
교환만족도	28.23	4.414	.879	25.32	4.567	.880
관계만족도	32.93	5.221	.905	32.89	5.296	.926
왜도(Skewness)*	-.8710~.7180			-.7615~.8154		
첨도(Kurtosis)*	-.2091~.5824			-.5273~1.1519		

주: #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 낮음 * 명목변수를 제외한 범위

각각의 척도들의 신뢰도 수준은 자녀의 금전영역¹⁰⁾을 제외하고 $\alpha \geq .6$ 이상으로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각 척도들의 타당도는 내용타당도와 요인분석(PCA)을 통해 검증하였다. 교환척도에 대한 타당도 검증은 이전 연구(김현주·이선이·이여봉, 2006)를 통해 확인되었고, 준거형평성, 갈등수준, 교환만족도와 관계만족도는 모두 하나의 요인으로 수렴되어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교환형평성은 요인분석 결과 두 개의 하위요인이 형성된다. 이는 자원이론에 근거하여 특수성과 구체성이라는 두 개의 차

10) 이에 대한 논의는 김현주·이선이·이여봉(2006)의 연구를 참고.

원을 포괄하도록 척도를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정규분포 여부를 검증하는 콜모고로프-스미로노프(Kolmogorov-Smirnov) 검정결과, 어머니의 형평성인지수준만을 제외하고,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영가설을 채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정으로 제곱근(square root)을 취한 값을 이용하여, 대안적 적합도 분석방법(ML, Robust)을 택하였다¹¹⁾.

1. 어머니와 자녀 비교모형

먼저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더 많이 투자할수록 자녀의 성적이 높아지는지를 검증하는 모형 A(NFI=.839 CFI=.874 RMSEA=.079) 보다, 성적이 좋으면 부모 자녀관계의 교환유형이 변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모형 B의 적합도가 더 높다(NFI=.905 CFI=.945 RMSEA=.052). 모형 B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라그란지 승수 검정(LMTEST: Lagrange Multiplier Test)을 이용하여 서비스자원과 교환관계만족도의 오차, 준거형평성수준과 교환관계만족도의 오차간의 공변량을 모형에 추가하였으나 적합도가 더 좋아지지 않아 기본모형 B를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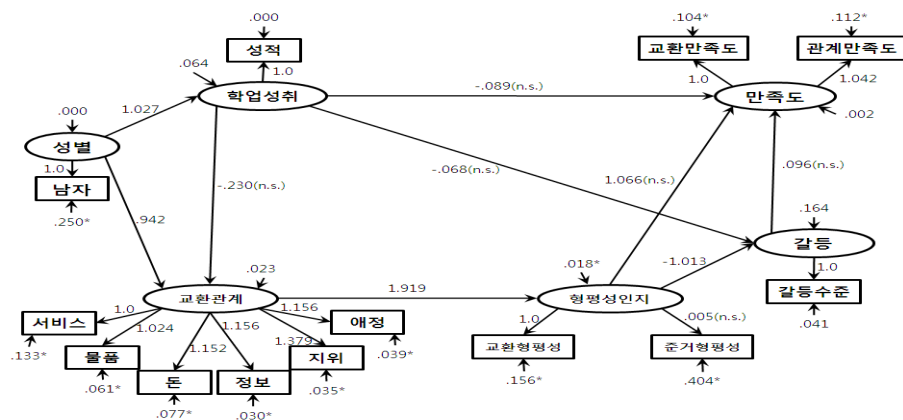
부모와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이 다르고, 부모와 자녀에게 사회가 기대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기존연구(이선이 외, 2006; 이여봉 외, 2007)들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서로 다른 교환관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두 개의 서로 다른 모형이 필요한지를 검증하였다. 현재의 적합도가 높은 모형 B가 어머니와 자녀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형인지 검증하기 위하여 각 경로의 계수가 두 집단에게 모두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을 구성하였다. 모두 9개의 경로계수가 어머니집단과 자녀집단에서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의 Satorra-Bentler scaled chi square의 값(520.3692, df=121)은 이러한 제약이 없는 모형의 Satorra-Bentler scaled chi square의 값(250.2101, df=112)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집단은 동일한 모형보다는 별개의 모형으로 구성되는 것이 더 적합도가 나음을 발견하였다.

모형의 신뢰도는 어머니(그림 1-1, rho=.710)가 자녀(그림 1-2, rho=.688)보다 높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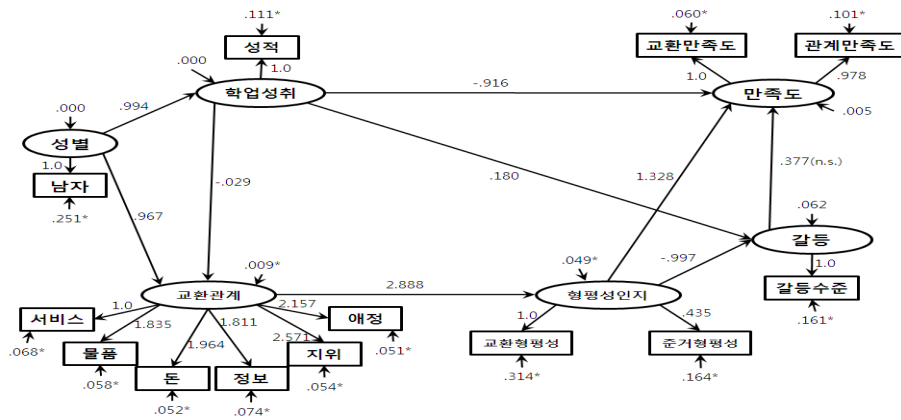
11) EQS 분석에 사용된 공변량 행렬표(covariance matrix)는 지면상 제시하지 않았으나 제 1 저자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

만 자녀집단에서 유의미한 경로가 더 많았다. 특히 자녀집단에서만 성적이 부모자녀 간의 갈등이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발견하였다. 부모들이 성적으로 자녀들을 판단하고, 성적에 많은 비중을 부여한다는 믿음과 달리 자녀의 성적으로 인해 어머니가 자녀와 갈등을 경험하거나 자녀와의 만족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에 자녀들은 스스로의 성적이 낮으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증가하고, 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집단에서만 성적이 부모자녀의 교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는 성적이 나쁘면 부모자녀간 교환관계에서 어머니로부터 자원을 덜 받는다고 응답한 반면 어머니집단은 성적과 부모자녀간 교환관계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또한 형평성 인지수준도 자녀의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어머니에게는 영향이 없었다. 자녀들은 어머니로부터 많이 받는다고 인지할수록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형평성 인지수준을 측정하는 또 하나의 측정변수인 준거형평성의 경우에도, 자녀에게는 유의미한 측정변수이지만 어머니에게는 준거형평성 인지수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효과를 보면 어머니와 자녀집단 모두에서 아들의 학업성취도가 낮으며, 딸보다는 아들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R 자승값을 살펴보면 어머니집단에서는 교환관계 측정에서 정보(.680)가 가장 높고, 자녀집단에서는 지위(.518)가 가장 높다. 두 집단 모두 만족도의 R 자승값이 가장 높아 어머니 집단은 .987, 자녀 집단은 .962였다.



[그림 1-1] 어머니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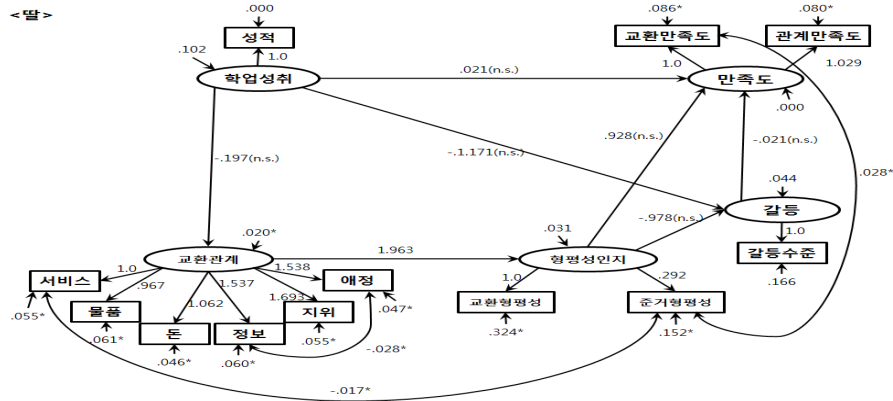
[그림 1-2] 자녀집단

2. 딸 집단과 아들 집단에서 어머니와 자녀 비교

기존연구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이선이 외, 2008, 2006; 문수경, 2005; Kaufman and Uhlenberg, 1998; Shehan & Dwyer, 1989)가 있음을 밝히고 있고, 학업성취수준도 성별에 따라 차이(김현주 · 이병훈, 2006)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 집단과 자녀집단 모두에서 자녀의 성별이 학업수준과 교환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1, 그림 1-2). 세대와 상관없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적합한 인과모형이 달라지는지 분석하였으나 신뢰할 수 있는 모형을 구성할 수 없었다. 이는 교환양상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세대(그림 1-1, 그림 1-2)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딸 집단과 아들집단을 대상으로 세대별 비교모형을 구성하였다.

1) 딸 집단

딸 집단을 대상으로 세대비교를 위해 각각의 모형 A와 모형 B의 기본모형과 라그랑지승수 검정(LMTEST)의 결과를 근거로 오차간 공변량을 추가한 모형, 어머니와 자녀집단의 계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제약을 가한 모형들의 적합도지수를 비교하여 가장 적합도가 높은 모형을 찾은 결과 애정과 정보, 준거형평성과 서비스, 교환관계만



[그림 2] 딸 집단의 세대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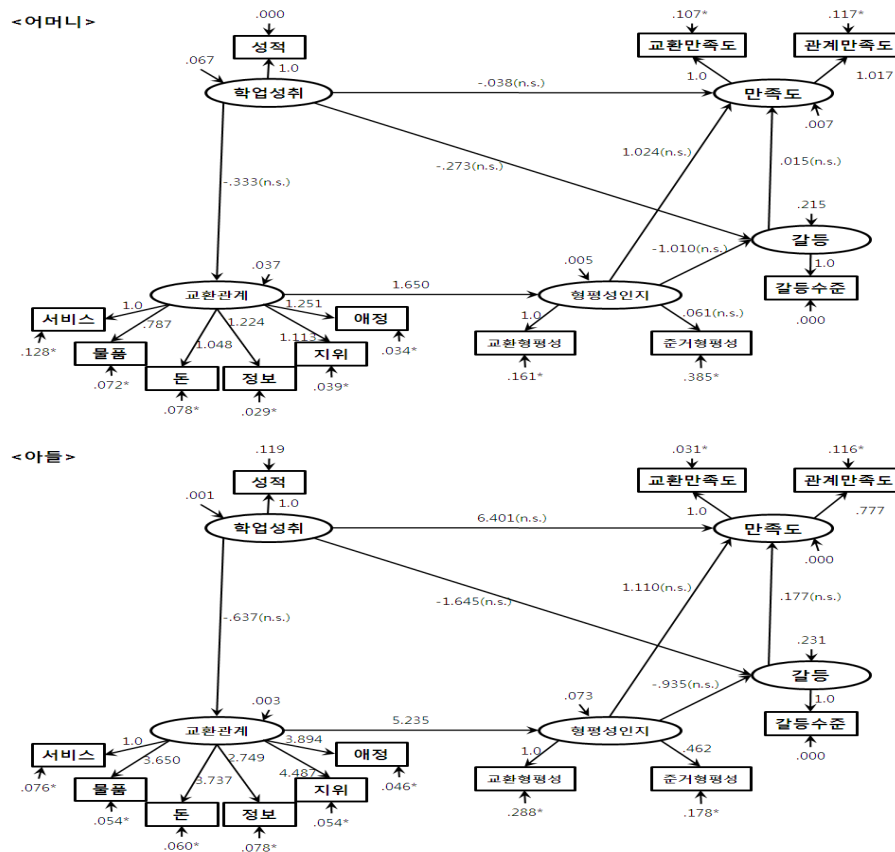
딸 가진 어머니집단에서 교환관계에 가장 큰 단위당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역시 애정영역이지만 R 자승값을 비교하면 교환관계의 측정 변수 중에서 정보의 값이 가장 크다(.622). 그러나 딸을 둔 어머니 집단의 모형신뢰도는 별로 높지 않다($\rho=.588$). 모형에서 가장 큰 R 자승값은 만족도로 .996이었다. 딸 집단의 경우는 교환관계와 형평성인지수준에서 각각의 이론변수들과 측정변수들의 관계가 예상과 동일하였고 신뢰도($\rho=.745$)도 높았다. 측정변수 중 R 자승값은 지위가 가장 커서 .506이고 이론변수들 중에서는 만족도가 가장 큰 R 자승값(.900)을 보인다.

2) 아들 집단

아들집단을 대상으로 딸 집단에서 시행한 동일한 분석 과정을 통해 모형의 세대별 비교를 하였다. 어머니와 자녀 두 집단을 비교하여 모형 A와 모형 B의 적합도 검증을 한 결과 성적이 부모자녀간 교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 B의 적합도($NFI=.879$, $CFI=.947$, $RMSEA=.055$)가 모형 A(공변량 포함, $NFI=.823$, $CFI=.881$, $RMSEA=.084$)의 적합도보다 높았다. 모형의 신뢰도는 어머니 집단이 .792(ρ)이고 자녀 집단은 .760(ρ)이었다. 그러나 모형 B는 본 연구에서 특히 관심을 갖는 성적의 영향¹²⁾이

12) 이에 비해 모형 A는 어머니 집단에서 교환관계가 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경로를 갖는다. 즉 딸집단과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면 아들의 성적이 좋을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집단과 자녀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그림 3). 이론변수인 교환관계의 측정과, 교환관계가 형평성인식에 미치는 영향만이 유의미하였다. 어머니 집단과 자녀집단에서 차이가 있다면 자녀는 형평성인식의 측정에서 준거형평성 인지가 유의미한 반면 어머니는 자녀와의 형평성인지를 측정함에 있어 다른 집 자녀를 준거로 비교한 준거형평성수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R 자승값 비교를 통해 어머니의 교환관계 측정변수 중에서는 정보(.696)가, 아들에게는 지위(.525)가 가장 설명력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들 집단에서는 이론변수 중에서 만족도(1.00)의 설명력이 가장 크지만 어머니 집단에서는 형평성인지(.958)가 가장 설명력이 컸다.



[그림 3] 아들집단의 세대비교

종합하면 자원교환이론의 모형은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어머니세대와 자녀세대를 비교하는데 유용함을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하였다. 자원교환이론모형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머니보다는 자녀들에게 더 많고, 형평성인지 수준에 따른 영향도 자녀들이 더 많이 받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자녀들은 성적이 좋으면 부모자녀관계에서 많은 자원을 수혜하고, 부모로부터 많은 자원을 받을수록 형평성 수준도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 형평성 수준이 낮아서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인지하면 갈등수준이 높고, 형평성수준¹³⁾이 높아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인지하면 부모자녀간 만족도도 높다. 또한 자녀들은 성적이 나쁘면 어머니와 갈등이 증가하고, 어머니와의 만족도도 낮다. 반면에 어머니들은 자녀의 성적에 의해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교환관계에도 변화가 없으며 갈등수준이나 만족도에도 변화가 없다.

딸집단과 아들집단 각각을 대상으로 어머니와 자녀를 비교한 모형에서 성적이 별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교환관계와 형평성간의 관계가 유의미하다는 점에서 딸집단과 아들 집단간의 큰 차이가 없다. 단 한 가지 차이라면 어머니집단은 딸에게서 많은 자원을 받는다고 응답하면 딸의 성적이 유의미하게 좋다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보았듯이 어머니들이 딸보다는 아들로부터 더 많은 자원을 받는다고 하였지만 성적과 교환의 관계는 딸인 경우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부모의 지원이 자녀의 성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발견한 결과와는 달리 역인과 관계를 고려한 본 연구의 결과는 오히려 어머니에게 많은 자원을 제공하는 딸들의 성적이 좋을음을 발견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성적이 부모자녀관계에서 직접 교환될 수 있는 자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교육적 성취에 대한 강조는 성적의 역할에 관심을 갖게 한다. 성적이 부모자녀간 교환관계와 기타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매개할 것인가? 아니면 성적이 일종의 외재변수로서 부모자녀간 교환관계나 기타 부모자녀관계의

13) 형평성 점수가 높을수록 내가 이득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질과 관련된 변수들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두 가지 인과 모형의 적합도 비교를 통해 검증 하였다. 성적과 교환관계의 인과방향은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을 많이 할수록 자녀의 성적이 좋을 것이라는 기존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성적이 부모자녀간 교환관계에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경우는 성적이 모형의 어떤 이론변수와도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반면 자녀는 성적이 부모자녀간 교환관계, 갈등, 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이는 부모세대가 자녀의 성적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성적에 따라 부모자녀관계가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일반적 믿음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는 자녀들의 경우, 성적이 나쁘면 어머니로부터 지원을 덜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갈등수준은 증가하고, 만족도는 낮아짐을 보여주었다. 자녀들은 자신의 성적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부모들에 의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성적을 받는 당사자인 자신들보다도 부모들이 성적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믿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자녀 자신들이 성적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학업에 대부분의 생활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의 헌신적인 지원에 대한 죄송함(탁수연·박영신·김의철, 2006)으로 인해 부모자녀관계를 성적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라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부모가 성적에 관심을 가졌던 이전의 경험이 반영됨으로 인해 자녀들이 자신의 성적에 민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또 하나의 관심인 자원교환이론과 형평성,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보는 모형은 어머니와 자녀간 세대비교를 통해 자녀에게 더 적합한 모형임을 발견하였다. 자녀의 경우, 이론에서 예상하고 있는 대로 교환관계에서 많이 받을수록 형평성인지수준이 높고, 자신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인지하면 갈등이 적고 만족도는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어머니의 경우는 교환관계와 형평성수준, 형평성수준과 갈등수준은 예상한 바와 같지만 형평성수준과 만족도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자원교환이론모형이 어머니보다는 자녀에게 더 적합한 이유는 젊은 세대로 갈수록 교환관계적 원리의 적용이 더 명확하며, 어머니 세대는 부모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에서 교환관계적 원리의 적용이 훨씬 완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딸 집단과 아들 집단을 구분하여 세대비교를 한 모형은 자녀의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세대비교를 한 모형보다 이론변수들간의 유의미한 경로가 적었다. 이론적으로 설정한 교환관계와 형평성, 형평성과 갈등, 형평성과 만족도의 관계 중에서 교환관계

와 형평성인지수준만 유의미하고 나머지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적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딸을 둔 어머니 집단에서만 어머니와 교환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을 많이 해야 자녀의 성적이 좋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어머니에게 많은 자원을 제공하는 딸이 성적이 좋았다. 이는 성별을 통합한 자녀집단에서 자신의 성적이 나쁘면 어머니로부터 자원을 적게 받는다고 응답한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자녀들은 자신들이 공부를 잘하면 어머니가 자신들에게 잘해준다고 본 반면, 딸을 둔 어머니는 딸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는 것과 딸의 좋은 성적이 연관되어 있다¹⁴⁾. 이는 자녀에게 부모가 투자(지원)를 많이 하면 자녀의 성적이 좋다는 기존연구들의 결과나 상식적 믿음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교환관계의 측정이 실제로 주고받는 자원의 측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미 주관적인 평가가 포함되어 응답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자녀의 성적이 좋으면 자녀가 어머니에게 적은 양의 자원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는 자녀를 기특하게 생각하여 자녀로부터 많은 자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교환관계에서 아들과 딸의 차이가 나타난 것은 성역할 사회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환되는 6개의 영역에 포함된 자원(서비스, 물품, 금전, 지위, 정보, 애정) 중에서 금전과 지위를 제외하고는 보다 여성적 역할과 관련 있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원을 딸이 제공하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들이 제공하면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어머니집단과 자녀집단을 비교한 결과(그림 1-1, 그림 1-2)에서는 딸보다 아들이 상대방(아들은 어머니, 어머니는 아들)으로부터 더 많은 자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의 교환관계에서 아들이 제공하는 자원에 더 의미를 두어 평가하고, 아들이 소유하고 있지 못한 자원을 어머니가 더 제공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따라서 설문지를 통한 자료조사에서 실제적인 교환관계와 주관적 평가가 부가된 교환관계를 구분해 낼 수 있는 측정변수를 고안해 내는 것은 이후 연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자료에 사용된 어머니집단과 자녀집단이 동일한 가족구성원이 아니라는 점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이므로 대응표본을 사용한 후속연구를 통해 동일한 결과가 발견되기를 기대한다.

교환관계 이론변수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6개의 영역 중에서 자녀들에게는 지위,

14) 아들을 둔 어머니 집단에서 모형B보다는 적합도가 낮기는 하지만 모형A에서 딸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에게 자원을 많이 제공하는 아들의 성적이 좋다.

어머니에게는 정보가 가장 큰 설명량을 갖고 있다.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자원을 받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크게 평가하느냐를 의미한다. 지위에 해당하는 측정문항들을 살펴보면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의 독립적 지위와 인격체로서의 인정을 해 주느냐와 관계되는 것이다. 반면 어머니들이 응답한 정보 측정문항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의사소통의 통로가 열려있는 것인가와 관련되는 것들이다. 딸 집단과 아들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자녀에게는 지위, 어머니에게는 정보 영역이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부모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물질적, 정서적 자원을 제공하고(추상엽·임성문, 2007a, 2007b; 박영신·김의철, 2000; Anderson & Minke, 2007; Chen, 2005), 그 보상으로 애정과 존경을 자녀로부터 받는다는 기존연구(김성숙, 2000; 박영신·김의철, 2004; 박영신·김의철·한기혜, 2003; 김현주·이길자, 2009)들과는 다른 결과이다. 교환관계를 측정하는 변수들이 물질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자원들까지 포함하고 있고, 6개의 모든 영역이 어머니와 자녀간 교환관계를 측정하는데 유의미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결과나 상식적인 믿음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이분법적인 자원의 공급과 수혜가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 모두 정서적 자원의 수혜에서 교환관계의 가장 많은 부분이 측정되고 있다는 결과는 부모자녀관계에서 특별히 존중해야 할 자원 영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자녀에게는 자신의 영역, 즉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어머니에게는 자녀가 독립적 인격체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어머니와 의사소통의 통로를 열어 놓고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하게 된다.

참 고 문 헌

- 김경식·안우환(2003). 학업성취 결정요인으로서 가족의 사회적 자본탐색. *교육학 논총*, 제24권 제1호, pp. 81-99.
- 김경신(1995). 부모와 수험생 자녀의 스트레스인지, 대처 및 디스트레스. *한국가정관리회지*, 제13권 제1호, pp. 12-25.
- 김기현·장근영(2009). 청소년의 생활패턴과 시간배분. 2009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청소년의 삶과 진로*, pp. 3-20.
- 김성숙(2000). TIMSS-R 배경변인 국제비교 결과와 해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우리 나라 중학생의 수학 과학 성취결과, 국제수준은 어떠한가?*, pp. 121-171.
- 김의철·박영신(2008). 한국사회와 교육적 성취(II):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토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4권 제1호(특집호), pp. 63-109.
- _____(2006a).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 나타난 토착문화심리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2권 제4호, pp. 1-36.
- _____(2006b).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은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2권 제5호(특집호), pp. 1-28.
- 김현주(2007).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배경과 사회·문화적 자원의 다중상호 작용방식. *한국사회학*, 제41권 제6호, pp. 171-203.
- _____(2005). 어머니와 자녀간 자원 교환과 관계만족도: 노후동거의사를 조건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0권 제 4호, pp. 525-553.
- 김현주·이길자(2009). 중학생의 가족개념에 대한 질적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제6권 제1호, pp. 23-52.
- 김현주·이병훈(2007).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영향. *한국인구학*, 제30권 제1호, pp. 125-148.
- _____(2006). 학업성취에 대한 가족배경의 영향: 성차이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제66권 봄호, pp. 138-159.
- 김현주·이선이·이여봉(2006).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간 자원교환 측정도구의 개발과 타당화. *가족과 문화*, 제18권 제4호, pp. 35-64.
- 문수경(2005).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한국가족복지학*,

- 제10권 제3호, pp. 105-125.
- 박영신·김의철(2006). 한국 사회와 개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2권 제1호, pp. 161-195.
- _____ (2004). 한국의 청소년문화와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_____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중고 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제39권 제2호, pp. 109-147.
- _____ (1998).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 가정환경, 귀인양식, 건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4권 제1호, pp. 29-53.
- 박영신·김의철·탁수연(2002). IMF 시대이후 한국 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8권 제1호, pp. 103-139.
- 박영신·김의철·한기혜(2003).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9권 제2호, pp. 127-164.
- 박영주·정혜경(2002). 대입 수험생의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및 대처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7권 제1호, pp. 43-61.
- 신화용·조병은(2004). 사회교환론적 관점에서 본 노모를 부양하는 성인자녀가 지각한 대가, 보상 및 관계의 질: 한국과 재미교포자녀의 비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9권 제1호, pp. 153-174.
- 안병철(2007).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학업성취 불평등도 평가. 경제연구, 제25권 제2호, pp. 21-38.
- 오성삼·구병두(1999). 메타분석을 통한 한국형 학업성취 관련변인의 탐색. 교육학연구, 제37권 제4호, pp. 99-122.
- 이동원(1992). 대학입시와 가족. 한국사회학회편. 대학입시와 가족, pp. 1-13.
- 이선이·김현주·이여봉(2006). 청소년기 자녀와 어머니의 교환관계 분석. 한국인구학, 제29권 제1호, pp. 97-131.
- 이선이·이여봉·김현주(2008). 부모와 청소년 성별에 따른 지지적·통제적 양육행동: 5개국 비교연구. 한국인구학, 제31권 제2호, pp. 45-76.

- 이여봉 · 이선이 · 김현주(2007). 자원 교환이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제19권 제4호, pp. 223-260.
- 이주희 · 한영희 · 성현정 · 인정(2007). 공직의 유리천장: 여성 공무원의 승진 저해기제 및 제도의 이면효과. *한국여성학*, 제23권 제3호, pp. 79-115.
- 추상엽 · 임성문(2007a). 가족구조와 고등학생의 학업성취간의 관계: 부모소득, 학업지원행동의 매개효과와 지연행동의 조절효과. *교육심리연구*, 제21권 제3호, pp. 297-512.
- _____ (2007b). 가족구조와 고등학생의 학업성취간의 관계: 부모소득, 학업지원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4권 제3호, pp. 135-157.
- 탁수연 · 박영신 · 김의철(2006).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관련 변인의 관계분석: 부모자녀 관계,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공부시간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제16권 제1호, pp. 143-154.
- Adams, J.(1965). Inequity in social exchange.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 267-299). New York: Academic Press.
- Anderson, K. J. and Minke, K. M.(2007). Parental Involvement in Education: Toward on understanding of parents' decision making.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100, No. 5, pp. 311-323.
- Austin, W., McGinn, N. C. and Susmilch, C.(1980). Internal standards revisited: Effects of social comparisons and expectancies on judgements of fairness and satisfac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6, pp. 426-441.
- Barreto, M. da Costa, Ryan, M. K. Schmitt, M. T.(2009). *The Glass Ceiling in the 21st Century: Understanding Barriers to Gender Equalit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ean, R. A., Barber, B. K., and Crane, D. R.(2006).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among african american youth: The relationships to academic grades, delinquency, and depression.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27, No. 1, pp. 1335-1355.
- Bott, E. 1957. *Family and Social Network*,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 Chen, J. J.(2005). Relation of academic support from parents, teachers, and peers to Hong Kong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The mediating role of academic engagement.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Vol. 131, No. 2, pp. 77-127.
- Cheung, S. Y and Andersen, R.(2003). Time to Read: Family resources and educational outcomes in Britain.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Vol. 34, No. 3, pp. 413-433.
- Foa, U. G. and Foa, E. B.(1975). *Resource Theory of Social Exchange*.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 Foa, U. G., Converse, J. Jr., Törnblom, K. Y., and Foa, E. B.(1993). *Resource Theory: Explorations and Applica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 Hatfield, E., Traupman, J., Sprecher, S., Utne, M. K., and Hay, S.(1985). Equity and intimate relations: Recent research. In W. Ickes(ed.), *Compatible and Incompatible Relationships*.(pp.91-117). New York: Springer-Verlag.
- Homans, G.(1974).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revised edition).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Huesmann, L. R. and Levinger, G.(1976). Incremental exchange theory. In L. Berkowitz and E.H. Walster(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pp.103-131). New York: Academic Press.
- Huston, T. L. and Cate, R. M.(1979). Social exchange in intimate relationships. In M. Cook and G. Wilson(eds.), *Love and Attraction*(pp.263-269). London: Pergamon.
- Kaufman, G. and Uhlenberg, P.(1998). Effects of Life Course Transitions on the Quality of Relationship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60, No. 4, pp. 924-938.
- Klein, D. M., and White, J. M.(1996). *Family Theories: An Introduction*. Thousand Oaks, CA: Sage.
- Kwon, H. J.(1992). *Gender Roles, Married Life and Marital Satisfaction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Messick, D. M. and Sentis, K.(1983). Fairness, Preference, and biases. In D. M. Messick and K. S. Cook(eds.), *Equity Theory: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Perspective*(pp.61-94). New York, NY: Pareger.
- Parsons, T., and Bales, R.(1954).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Glencoe, IL: Free Press.
- Roloff, M. E.(1987). Communication and Reciprocity within Intimate Relationships. In M. E. Roloff and G. R. Miller(eds.), *Interpersonal Processes: New directions in Communication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 Rossi, A. S. and Rossi, P. H.(1990). *Of Human Bonding*. NY: Aldine de Gruyter.
- Shehan, C. L. and Dwyer, J. W.(1989). Parent-child Exchange in the Middle Years ‘ Attachment and Autonomy in Transition to Parenthood., In J. A. Mancini(ed.), *Aging Parents and Adult Children*(pp.99-113),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 Singh, K., Bickley, P. G., Keith, T. Z., Keith, P. B., Trivette, P. and Anderson, E.(1995). The effects of four componen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eighth-grade students achievement: Structural analysis of NELS 88-data. *School Psychology Review, Vol. 24*, pp. 299-317.
- Sprecher, S. and Schwartz, P.(1994). *Equity and Balance in the Exchange of Contribution in Close Relationship*, In M. J. Lerner and G. Mikula(es.) *Entitlement and the Affectional Bond: Justice in Close Relationship*(pp.11-41), NY: Plenum Press.
- Teichman, M., Glaubman, H. and Garner, M.(1993). From early adolescence to middle-age adulthood: The perceived need for interpersonal resources in four developmental stages. In U. G. Foa, J. Converse Jr., K. Y. Törnblom, and E. B. Foa(eds.) *Resource Theory: Explorations and Applications* (pp.157-165), New York: Academic Press.
- Thompson, L.(1991). Family Work: Women's Sense of Fairness. *Journal of Family Issues, Vol.12, No.2*, pp.181-196.
- Walster, E., Berscheid, E., and Walster, G. M.(1973). New directions in equity

-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25, pp. 151-176.
- Walster, E., Walster, G.W. and Berscheid, E.(1978). *Equity: Theory and Research*, Boston, MA; Allyn and Bacon.
- Wong, E. H., Wiest, D. J. and Cusick, L. B.(2002). Perceptions of Autonomy Support, Parent Attachment, Competence and Self-worth as Predictors of Motivational Orien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An Examination of Sixth- and Ninth-grade regular education students. *Adolescence*, Vol. 37, No. 146, pp. 255-266.
- Youniss, J and Smollar, J.(1985).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A Sullivan-Piaget Perspectiv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BSTRACT

The Role of Academic Achievement in the Exchange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nd Child

Kim, Hyun-Ju* · Lee, Sun-I** · Lee, Yeo-Bong***

Basing our current study around exchange theory and resource theory, we developed a model of mother-child relational satisfaction. The model is made up of causal relations in which the pattern of resource exchanges affects the perception of the level of equity, and the equity level influences both the conflict and the satisfaction level. In addition to this model, we examined the causal direction of the academic achievement level on the exchange relationship. The data used for the study were collected from 450 adolescent children and 450 mothers from a nationwide sample. The EQS program was used for the analysis. Our results indicated that the exchange model was better suited to the child than the mother. Th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had an influence on the exchange and also on the conflict and satisfaction level in the sample group of children. The responses of the children indicated that they receive less from their mother if their academic achievement level was low. When we compared sons and daughters, daughter's achievement levels tended to have an effect on the exchange pattern.

Key Words : resource exchange, equity, achievement, mother-child satisfaction

투고일 : 8월 11일, 심사일 : 9월 17일, 심사완료일 : 10월 25일

* Chung-Ang University

** Ajou University

*** Kangnam University